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20호

부활절 여섯째 주일, 5·18민주화운동기념 주일

2020년 5월 17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사랑과 공경 | 박민정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내 영이 주를 높이ना이다(J. Rheinberger)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9장(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이자, 5·18민주화운동기념 주일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영이 되신 주님께서(고전 15:45)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고전 15:57).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회 중: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목 사: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회 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너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목 사: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회 중: 내가 마음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목 사: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회 중: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아멘(시 66:8, 13-20).

경배찬송 434장(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시 116:5-8)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대하 6:23). 아멘.

응답송

자비하신 주여(경동찬송 17장) 다함께

자비하신 주여 자비하신 주여 우리들을 돌보소서

침묵의 기도

.....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셔서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시 145:8-9),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할렐루야(경동찬송 6장) 다함께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2번)

말씀

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17:22-28 1부: 조준영 집사
2부: 김 호 집사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응답송 199장(나의 사랑하는 책) 후렴 **다함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서신의 말씀 베드로전서 3:13-18 **1부: 박세진 집사**
2부: 김유정 집사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응답송 199장(나의 사랑하는 책) 후렴 **다함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14:15-21 **목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यो,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199장(나의 사랑하는 책) 후렴 다함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고순희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주께 갑니다(R. M. Stults) 1부: 윤경희 권사, 이현숙 권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이윤영 곡) 2부: 김경원 집사

설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370장(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나 주를 떠나지 않으리(J. L. Krebs) 1부 오르가니스트

Menuet gothique(L. Boëllmann) 2부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일예배(1, 2부) 안내 수칙

- 1) 찬송가와 성경책은 개인 지참
- 2)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입장
- 3) 본당 입장 1m 거리 유지(*예배 마친 후 1m 거리 유지)

① 손세정제(손씻기) → ② 발열 체크 → ③ 참석 대장과 체온 작성, 스티커 부착 →
④ 주보, 봉헌 → ⑤ 본당 입장 → ⑥ 지정된 자리 착석
- 4) 좌석에 앉기 전 봉헌을 마친 후, 예배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착석

2.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안내

‘코로나19’로 당분간 주일예배(1, 2부) 참여를 위해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사무실(T. 02-2274-0161)에서 사전접수를 받습니다.

3.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헌금) 안내

-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 *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

4. 주일예배 영상 안내

-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5. 5월 예배 안내 위원

- 1부: 이재학 집사 · 김필원 권사, 박찬호 집사 · 진미라 집사, 이재열 집사, 이은희(정) 권사
- 2부: 이재인 집사 · 편순남 권사, 박민수 집사, 이신화 집사, 이현승 집사, 곽대영 집사

6. 다음 주일(5월 24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조규곤 장로	1부	조유현 집사 · 남궁재은 집사	2부	김진현 집사, 김종임 집사	

특별봉헌 5월 3일

감사헌금

김수평·임문규(범사), 김정애(감사), 김종현·송승연(코로나 극복), 김지옥(십일조), 박수길(감사), 방혜연(감사), 서경국(감사), 이강송·채해림(십일조), 이기쁨(은혜), 이재명·김은혜(감사), 이재욱·주숙현(감사), 이화수·유영자(감사), 임창복·이영분(감사), 정갑영·황영주(감사), 정한움(감사), 채수일·김경숙(범사 감사), 허보람(생일)

지정헌금

탈북자지원헌금

김병태·김수미

다음 주일 말씀

5월 24일(부활절 일곱째 주일)

성 경: 행 전(사도행전 1:6-11)
서신서(베드로전서 4:12-14, 5:6-11)
복음서(요한복음서 17:1-3)

설 교: “‘영생’은 무엇인가?”, 채수일 목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1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3.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4.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1.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2.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3.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후렴)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